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76> 한퇴지

강릉 선교장은 전통양반가옥의 백미이다. 설악성지나 낙산사를 갔다가 여유가 허락되면 저절로 들르게 된다. 절집의 화려함과 분주함과는 달리 선비집의 단아함과 고요함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이 집의 사랑채인 열화당(悅話堂)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열친척지정화(悅親戚之情話)'가까운 이들의 정다운 이야기를 즐겨 듣는다고에서 나온 당호이다. 이 집안 출신 후손이 출판사를 차려 '열화당'이란 상호를 사용하여 좋은 책을 많이 낸 까닭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더 유명해지게 되었다.

입구의 활래정(活來亭)은 연지를 바라보고 있는 누각이다. 칠월칠석을 전후해 연꽃이 만개한다. 정자로 들어가는 대문 양쪽 기둥에는 '낙의'는 한 문구만이 달려있다.



조숙지변수(鳥宿池邊樹) 송고월하문(僧敲月下門) 새는 연못가의 숲으로 자러오고

후사정을 이야기했다. 퇴(推)자보다는 고(高)자가 낫겠다고 하여 그 의심을 해결해 준다. 그가 바로 한퇴지(韓退之) 768-824이다. 이후 글을 고치는 것을 '퇴고(推敍)'라고 부르게 되었다.

819년 현종황제가 부처님의 사리를 공중으로 가져와 사흘동안 모셨는데, 퇴지 한 유(韓愈)는 "오랑캐의 사람인 불(佛)의 메마른 뼈를 공중에 들입은 부당하며, 이를 수화(水火)로 소멸시켜 단절하소서"라는 내용의 <불골표(佛骨表)>를 올렸다. 이에 임금의 노여움을 사서 조주(潮州)로 좌천되었는데 그곳에서 태전보통(太顛寶通) 선사를 만나게 된다. 그곳에서도 기생 흥련을 선사에게 보내 꼬시도록 했으나 실패한 뒤 한퇴지는 이미 기싸움에 밀려있는 상태였다.

선사는 만나자마자 '불교의 어떤 경전을 보았느냐'고 쏘았다. '별로 뚜렷하게 본 경전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단도 직입적으로 물었다.

佛사리 모신 황제에 반대 상소 올려 좌천 태전선사 "경전 한번 제대로 봤느냐" 일침

스님네는 달빛아래 문을 두드린다.

해집 무렵을 묘사한 이 시는 당나라 가도(賈島 779-843)의 솜씨이다. 그러나 정작 이 글이 유명해진 것은 '좌품성'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 그는 한 때 무본(無本)이라는 법명으로 출가생활을 했다. 어느 날 석양 무렵 시를 한편 완성해놓고 뒷구절에서 고심을 거듭하게 된다. '승고월하문'에서 '두드림 고(敲)'자를 '밀칠 퇴(推)'로 바꿀까 말까를 고민했다. '문을 두드린다'가 좋을까 '문을 밀친다'가 좋을까 하며 나뉘네로 께뻘하고 있던 중 경윤(京尹) 지금의 서울시장직)의 행차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삼매 속에 오로지 '퇴?...고?...퇴?...고?...퇴?...'를 송화두(頌話頭) 마냥 읊조리다가 행차 가운데 끼이고 말았다.

이 뜻하지 않는 돌출적인 사건 앞에 수행원들이 난리가 나고 웅성거리는 소리에 마침내 경윤이 그 이유를 물었다. 그래서 전

"그렇다면 그대가 불법을 비방함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그러자 한퇴지는 어물어물 하였다. "만약 사림을 받아서 했다면 주인이 시켜 따라하는 개(犬)와 다를 바 없고, 자신이 스스로 했다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서 비방한 것이니 이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 한 마디에 그의 뒤를잡아 스스로 풀렸다. 이제 조사(祖師)의 도리를 전할 시절이 왔다.

어느 날 한유가 선사를 찾아왔다. "산경을 읽었는가? 나를 보러 왔는가?" "산경을 읽었습니다." "그럼 지팡이를 가지고 왔는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태전선사가 말했다. "지팡이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말장רת다가 행차 가운데 끼이고 말았다."

"??? (이게 뭐 소리여?)" ㅋㅋ, 아마 평생화두가 되었을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장)

팔정도 닦아야 진정한 불자의 삶

각목 스님 특강 '초기경전으로 본 수행과 깨달음'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답하는 이가 없다. "깨달음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습니까?" 물음은 더 깊이 들어갔다. 역시 답하는 이가 없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불교적 답은 무엇입니까?" 가느다란 목소리의 대답이 나왔지만 각목 스님이 원하는 답은 아니었다.

각목 스님이 원하는 답은 초기경전에 근거한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널리 통용됐던 인도 언어인 빠알리어로 기록된 부처님 가르침을 담은 초기경전. 이들 질문에 대한 초기경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 주최로 8월 18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열린 각목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초청 '초기경전으로 본 수행과 깨달음' 특강 발표 내용을 요약한다.



▷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깨달을 것인가.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초기경전에서는 깨달음을 사성제, 팔정도, 연기, 오온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성제이다. 사성제(四聖諦)란 고(苦)·집(集)·멸(滅)·도(道)의 네 가지 진리를 말한다.

초기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사성제를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숫타니파타> 55번째 계승에 "나는 알아야 할 바를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았다는 것은 고성제(苦聖諦)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다는 것은 도성제(道聖諦)를 말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는 것은 집성제(集聖諦)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꿰뚫어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처라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인 것이다.

▷ 깨달음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나?

부처님의 최초 설법을 담은 <조전법륜경> 등에 보면 부처님은 중도(中道)를 깨달았다고 나온다. 그리고 중도와 함께 어김없이 언급된 것이 팔정도다. 중도를 한 마디로 말하면 팔정도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법

하신 것도 팔정도다.

팔정도(八正道)란 정견(正見·바른 견해), 정사유(正思惟·바른 생각), 정어(正語·바른 언어), 정업(正業·바른 행동), 정명(正命·바른 생환), 정정진(正精進·바른 노력), 정념(正念·바른 의식), 정정(正定·바른 정신)을 말한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 한 제자가 "어떤 것이 진정한 사문집단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불교 승가가 진정한 사문집단이다. 왜냐하면 팔정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다.

깨달음이란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는 것이고, 사성제를 깨달음이라는 것은 도성제를 안다는 것이다. 도성제는 열반에 이르는 방법, 곧 실천 수단이며, 여덟 가지가 있다. 이것이 바로 팔정도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실현하는 방법이 팔정도라는 것이다.

팔정도는 수행의 핵심이다. 화두를 들고 있다고 해서 수행이 아니다. 사성제나 팔정도에 대한 근원적인 이해 없이 하는 수행은 '수행 테크닉'만 키울 뿐이다.

▷ '나는 누구인가'

초기경전을 근거로 한다면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오온(五蘊)이다. 오온이란 색(色)·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가지로, 현상세계 전체의 구성요소를 의미

사성제 꿰뚫어 아는 것이 깨달음

팔정도, 중도이자 수행의 키포인트

불교핵심 모르고 화두 들면 안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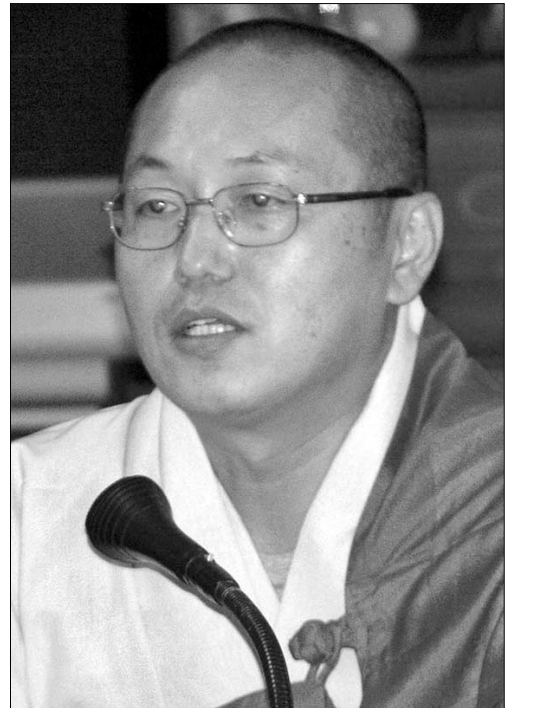
한다. 따라서 오온으로 해제해서 보면 모두가 무아(無我)다. 오온으로 나 자신을 해제해서 보면 무상(無常)이 보이고 고(苦)가 보이고 무아(無我)가 보인다는 것이다. 즉, 너도 오온이고 나도 오온이다. 불교공부 30년 해서 오온이라는 답이 안 나온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히 때마다 오는 <반야심경>의 핵심도 바로 오온이다. 모든 것은 매순간 생멸을 거듭한다. 이렇게 분석해보면 무상이 드러난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다. 그리고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할나할나 것이어서 내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존재의 실상을 나타낸 삼법인(三法印)이다.

무상을 통해 해탈하면 무상해탈, 고통을 꿰뚫어봐서 실현되는 해탈을 (바라는 것이 없다)무원(無願)해탈, 무아라고 꿰뚫어 안 것을 공해탈이라고 한다. 무상 고 무이는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해탈과 연결된다.

▷ 수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

불교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한다. 불교는 부처되는 가르침이다. 모든 불자들이 항상 의문을 품고



이날 법회에서 각목 스님은 불교의 핵심을 이해한 뒤 수행을 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있는 것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불교 핵심에 대한 이해없이 깨달음을 마치 로 포복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복권 하나 사 놓고 인생역전이라는 희망 속에 일주일을 기다린다. 마찬가지로 화두 하나 받아놓고 복권 보관해놓듯 장롱 속에 밀어 넣고 '나에게도 화두가 있다'고 뿌듯해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로복처럼 딱 떨어져 화두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건 수행이 아니다. 불교의 핵심에 대한 이해없이 한 방에 화두 깨치면 된다는 식의 수행은 수행이 아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 없는 그 어떤 수행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 평생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수행의 핵심은 팔정도다. 계율을 지키는 것은 팔정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道)를 닦는 것이다. 도란 닦는 아닌 팔정도다. 팔정도를 닦는 삶이 진정한 불자의 삶이자 사성제를 완성시키는 삶이요, 중도와 연기를 실현하고 오온의 무상과 고와 무아를 실현하는 길이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밤은 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세는 본래는 인내 지조를 보드립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rcnt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 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타암 주지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 지금 주문하시면 5일후에 도착합니다

正宇 천연무공해 황토방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요사채를 **천연 순100% 황토방**으로 장엄하게 불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정우 천연황토는 화학물질, 석회석, 시멘트, 본드 등 일체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순100% 천연황토만을 사용하며, 묻어 나가거나 갈라짐, 깨어짐, 들뜸 현상이 없어 벽지나 장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순 100% 황토가 아니면 시공비 전액을 받지 않습니다.

고건축일변건축동기와 황토방 인테리어시공 전문

正宇文化財建築
정우천연 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96번지
전화 062)226-4445
팩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이메일 bestceo12@naver.com

여러분 아직도 레이키(Reiki·靈氣)를 모르십니까?

레이키(Reiki·靈氣)를 배워야만 바로 지체없이 氣치료 능력자, 氣주입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독자들께서 오래 수련을 하지 않고도 그렇게 된다는데 의문을 표하며 믿으려 하지 않아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최선의 답은 실제로 교육을 받아 보시라는 답이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는 더욱 많은 분들이 적은 비용으로 레이키를 배워 보실 수 있도록 교육비를 9월 1일부터 55만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1997년(150만원) → 1999년(120만원) → 2000년(100만원) → 2002년(70만원) → 2006년 9월부터(55만원)이라는 교육비 인하의 경로를 거쳐온 것입니다. 레이키요법은 수험생의 스트레스 관리, 수천가지 급만성 질환의 관리에 대체요법, 보완요법으로서의 효과를 두루 발휘하는 氣주입법이며 약손요법이고 면역력 향상법입니다.

- ◆ 교육비 : 55만원 ◆ 교육기간 : 2~3일
-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 전 화 02)720-5719, 720-5682
- 핸드폰 010-8392-2557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출구에서 경향신문사 쪽으로 10분 피어션 빌딩 809호실